

2023

10.23

CERIK 시장동향

2023년 10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 매매시장	2
○ 임대차시장	5
○ 공급	6
○ 수요	9
○ 금융	10
○ 부동산산업	11
○ 통계요약표	12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

- 19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0.03% 상승)
- 전국 아파트 인허가 상세 유형별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적은 1,998호 기록
- 매매 및 전세 수급동향지수 올해 들어 지속 상승세... 가격 상승과 영향 있어

- ◎ **(종합)** 완화적 금융 정책 회수와 기존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 해당 사안에 주목해야
- ◎ **(매매)** 경기도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9개월 만에 0.03% 상승
 - 9월 들어 월간 아파트 가격지수를 발표하는 주요 3개 기관 모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보고함. 마지막까지 하락세를 그렸던 KB통계도 이번 달 들어서는 0.212% 상승세를 나타냄.
 - 서울지역에서는 3개월 전부터 하락세에서 벗어나 9월 들어 0.10% 상승했고 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하락세를 보였으나 2개월 전부터 하락을 벗어남.
- ◎ **(거래)**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전월 대비 각각 5.0%, 8.9% 증가해 2달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를 끊고 증가세로 돌아서
 - 집합건물을 기반으로 집계한 9월 전국 생애최초 매입자 비율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2023년 연중 가장 높은 비율임.
 - 다만 매매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거나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매매거래량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년 이하 초단기 매매 비중은 지난해 5월 12.0%에 달했으나 최신 자료인 9월 기준 3.7%로 감소
- ◎ **(임대차)** 지방 전세 및 월세통합가격도 각각 17개월과 11개월 만에 상승세 기록
 -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늘었지만 아파트 외 상품에서도 전월 대비 증가폭 7.4%로 나타나
- ◎ **(공급)** 전국 APT 인허가 2,000호에 채 못 미쳐 상세 유형별 통계집계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적어
 - 연간 누적(1~8월) 주택 인허가 감소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추세를 나타냄.
 - 전국 분양, 11,911호로 MoM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급작스러운 분양 경기 침체로 보기보다는 긴 추석 연휴의 여파로 보는 것이 옳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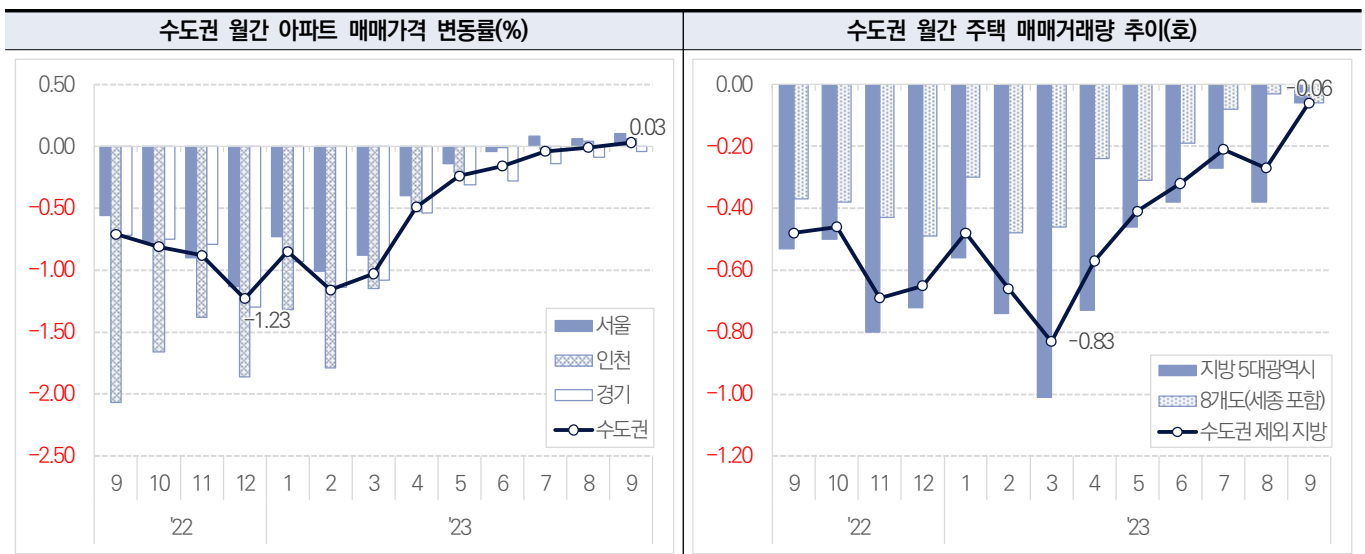
매매시장

1_수도권(서울·인천·경기)

- 9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
-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나

- ◎ (가격) 9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3% 상승, 지난달과 동일하게 서울·인천 상승했지만 경기 하락세 지속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난 2022년 3월 처음으로 0.01% 하락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 보이며 그동안 누적된 하락폭 8.35%에 달해
 - 수도권에서 가장 늦게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서울지역이 3개월 전부터 하락을 벗어나 이번 달 들어 0.10% 상승했고 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하락세를 보였으나 2개월 전부터 하락을 벗어남.
 - 9월 들어 월간 아파트 가격지수를 발표하는 주요 3개 기관 모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보고함. 마지막까지 하락세를 그렸던 KB통계도 이번 달 들어서는 0.212% 상승세를 나타냄.
- ◎ (거래) 8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3,277호로 전월(22,179호) 대비 5.0% 증가
 - 지난달에는 2개월 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이번 달에는 인천 지역 거래량이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 수준(+1호)을 기록했고, 서울(+635호)과 경기(+462호)의 거래량은 증가하였음.
 - 다만 매매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거나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매매거래량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매매시장

2_지방(지방광역시·8개 도)

- 9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 폭은 0.06%로 집계돼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적은 낙폭 기록
-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울산과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하며 지방 전체로는 전월 대비 9.1% 감소

◎ (가격) 9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 폭은 0.06%로 집계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됐던 지난해 4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

- 지난달 기준으로 당초 집계됐던 8월 월간 하락 폭이 0.04%에 불과해 9월에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거래사례 등이 추가되면서 10월에 재집계한 결과 0.2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이를 지방광역시와 그 외 8개도(세종시 포함)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더라도 각각 0.06% 하락해 수도권 제외 지방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하락이 진행되었다고 하겠음.

* 9월 집계됐던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율 : 수도권 제외 지방 -0.04% / 지방광역시 -0.05% / 기타지방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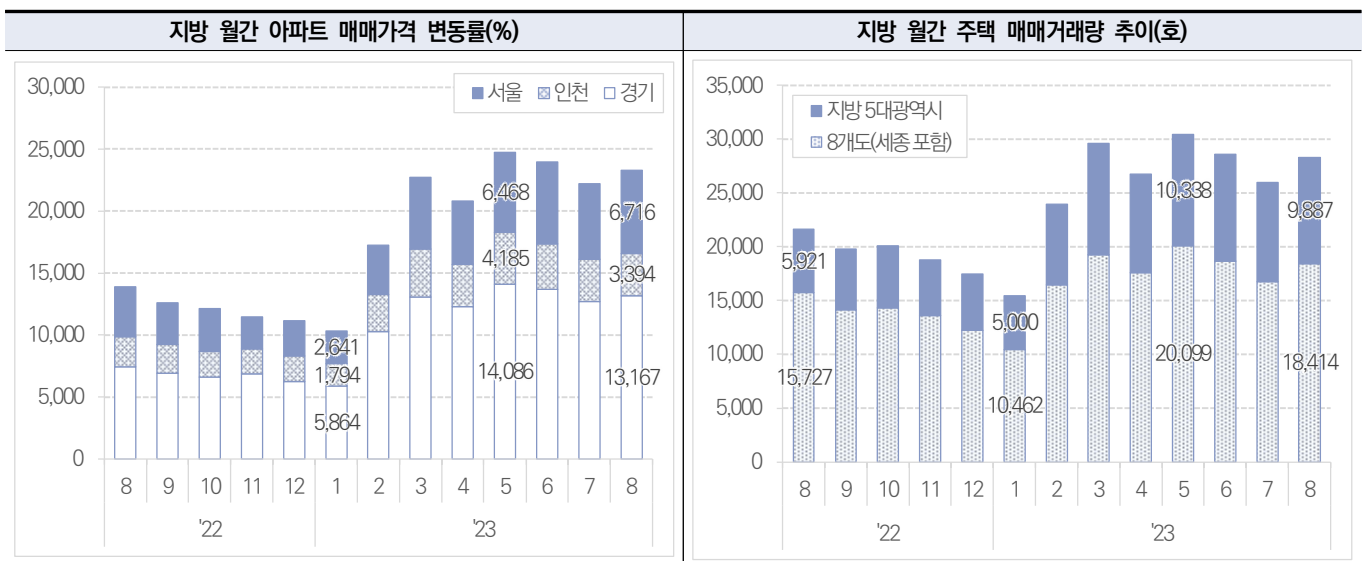
* 10월 집계된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율 : 수도권 제외 지방 -0.27% / 지방광역시 -0.38% / 기타지방 -0.03%

- 단,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의 월간 하락률이 0.40%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고 월간 가장 빠르게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로 월간 0.16% 상승함.

◎ (거래) 8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방광역시와 8개도(세종시 포함)를 가리지 않고 재차 증가

- 지난달 충북과 유일하게 거래량 증가했던 울산, 8월 들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매거래량 3.8% 감소

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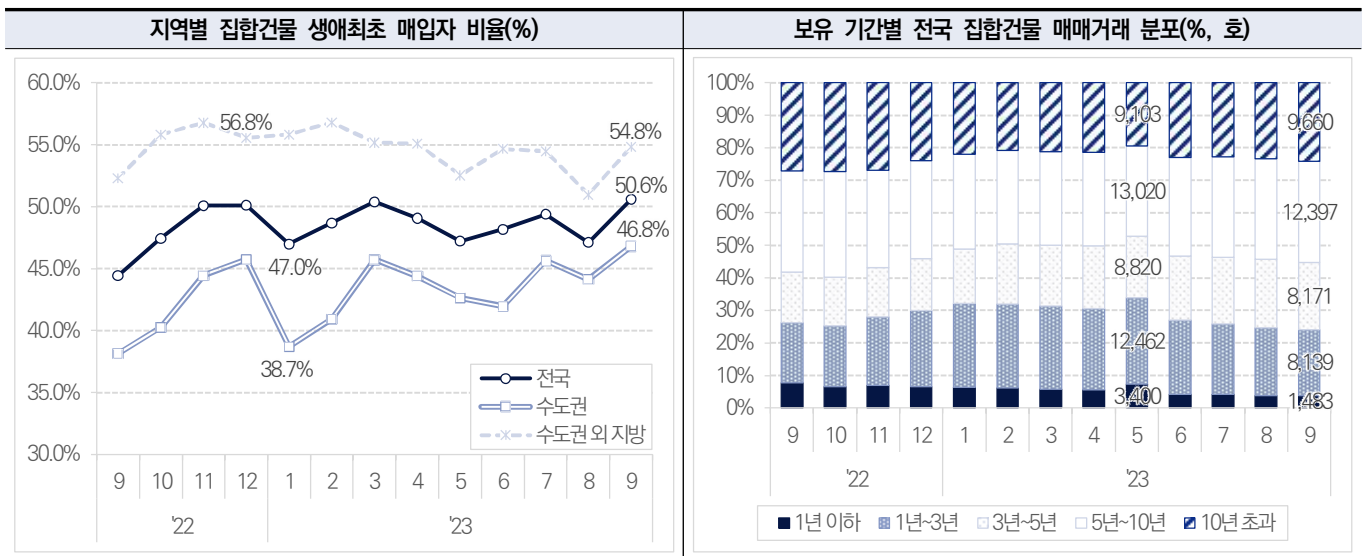
매매시장

3_거래속성

- 서울 주택거래량 소폭 감소했지만, 기타소유권 이전 비율은 이전 수준과 큰 차이 없어 전체 거래의 28.7% 기록
- 보유 기간별 구성비는 지난 6월 이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 이후 변화상을 확인할 필요 있어

- ◎ (생애최초 매입) 9월 전국 생애최초 매입자 비율은 50.6%로 집계돼 연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집합건물 기준).
 - 지방과 수도권을 비교하면 지방은 생애최초 매입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수도권에서는 증가세가 나타남.
 - 전국 기준, 전체 매입자 중 생애최초 매입자의 비율은 지난 1년간 평균 48.8%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 5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1년 한정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제도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역시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하므로 향후 생애최초 매입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
- ◎ (보유기간) 5년 이하 단기 매매 비중은 전체의 44.6%로 지난 5월 기록했던 52.7%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세
 - 그중에서도 1년 이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12.0%^(22.5)→7.3%^(23.5)→3.7%^(23.9))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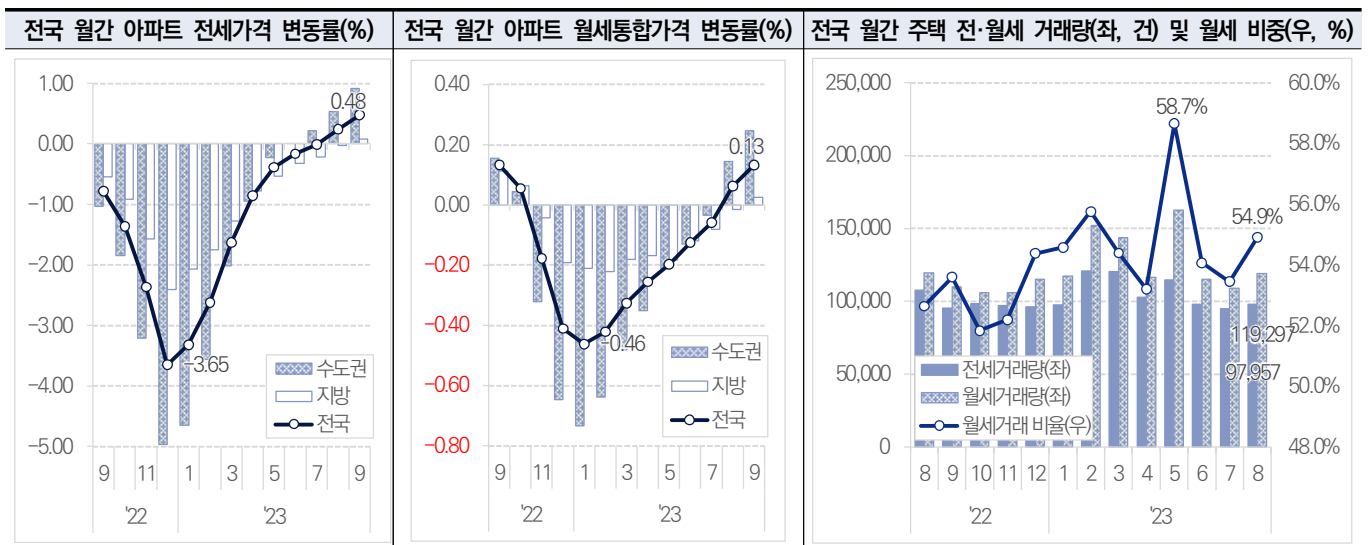
※ 주1 : '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로(동 기준; 경기도, 2020),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 주2 :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대차시장

- 지방 전세가 17개월 만에 상승세(0.07%) 나타났고 월세통합가격도 10개월간의 하락의 마치고 11개월 만에 상승세(0.03%)
- 8월 전국 주택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은 21만 7,254건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직전 1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 **(전세)** 9월 전국 전세가격은 0.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을 더 키움.
 - 그중 수도권 전세가격이 8월에 비해 0.91% 상승함으로써 지방의 0.07% 상승에 비해 전국 전세가 상승세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지방 전세가는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9월 들어 15개월 만에 상승세 기록
 - 다만 2년 전인 2021년 9월 전세가격지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전국 평균 14.5%, 수도권은 18.8% 하락한 상태이므로 전세시장의 위험을 항상 인지하여야 할 것임.
- ◎ **(월세)** 지방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¹⁾, 11개월 만에 0.03% 상승세 기록
 - 전국에서 월간 가격 상승세 가장 컸던 지역은 경기 안산상록(MoM 1.23%)과 과천(MoM 1.22%)으로, 전세 상승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분석됨.
- ◎ **(거래량)** 8월 전국 주택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6.7% 증가했는데, 아파트에 비해 아파트 외 상품에서 소폭이지만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각각 MoM 6.4%, 7.4% 증가).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1) '월세통합가격(지수)'이란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 이하 동일함.

공급

1_인허가

- 연간 누적 주택 인허가 감소폭,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추세 계속돼... 전년 대비 누적 38.8%(1~8월) 감소
- 전국 APT 인허가 월간 2,000호에 못 미쳐 상세 유형별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APT 인허가가 가장 적은 달로 기록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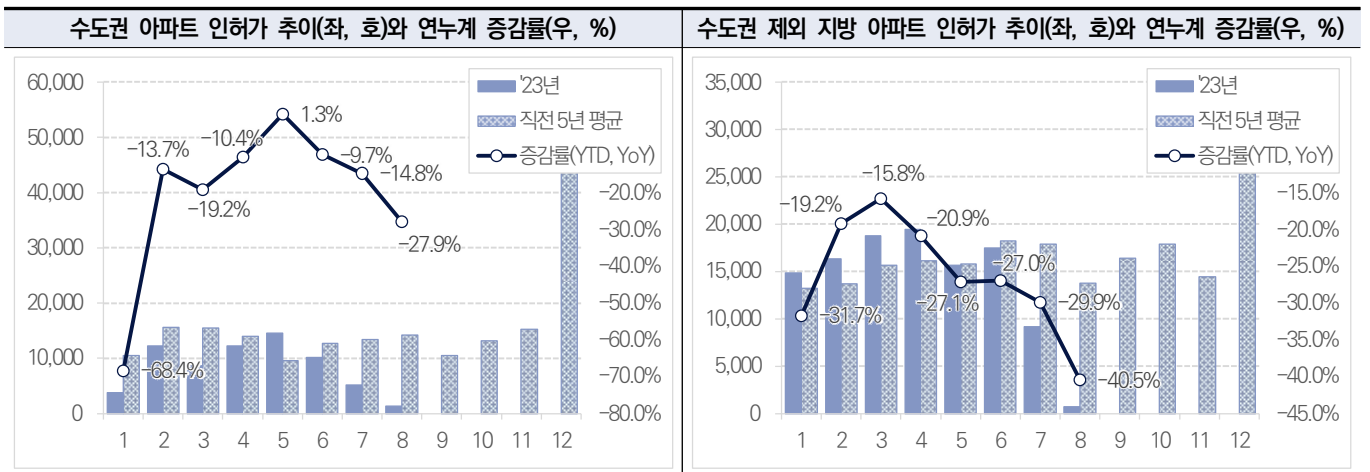
- ◎ (주택 전체) 8월 인허가받은 주택은 5,479호로 MoM 69.7%, YoY 89.4% 감소
 - 지난달 이례적으로 인허가 물량 적었던 대구(212.5%)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소 10% 내지 최대 97%에 달하는 인허가 감소세 나타나
- ◎ (APT) 8월 전국 아파트 인허가 1,998호... 전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상세 유형별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달로 기록
 - 그중 수도권은 1,307호, 지방 아파트 인허가는 691호로 수도권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 인허가 현황(YTD)

인허가 현황 (호, %)	지역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2022년 1~8월	295,855	109,935	64,178	121,742	13,862	6,543	4,936	2,383	281,993	103,392	59,242	119,359
2023년 1~8월	207,278	78,889	45,334	83,055	8,850	6,134	1,855	861	198,428	72,755	43,479	82,194
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	-29.9%	-28.2%	-29.4%	-31.8%	-36.2%	-6.3%	-62.4%	-63.9%	-29.6%	-29.6%	-26.6%	-31.1%

※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허가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공급

2_분양

- 9월 전국 분양은 11,911호로 전월 대비 46.5% 감소했으며 다른 해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판단됨.
- 10월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약 4.6만 호로 조사돼 9월 분양 물량에 비해 4배 더 많은 물량이 계획되어 있음.

◎ (수도권) 10월 수도권 분양은 5,072호로 집계돼 연중 가장 적은 물량을 기록

- 9월 말에 시작한 추석 연휴가 10월 2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해 6일로 늘어난 데 따라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소위 명절 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 지방 분양은 월간 1만 호를 넘어선 지 두 달 만에 다시 6천 호대로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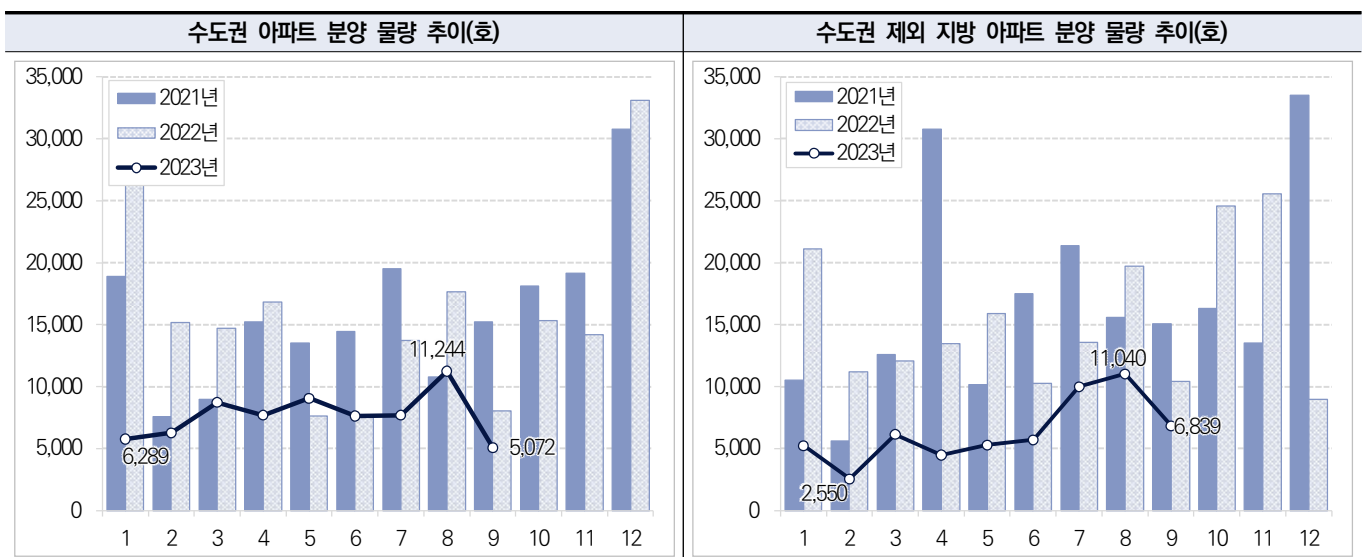
- 연누적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월 전년 대비 75.2%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폭을 점점 줄여 9월 현재 전년 대비 연누적 분양 물량의 격차가 55.1%로 줄어들었음.

◎ (분양계획) 10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주택은 약 4.6만 호로 예상

- 9월에 이연됐던 물량이 10월에 분양되면서 9월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응답하였음.
- 만약 계획대로 분양된다면 연중 가장 많은 분양물량에 비해서도 2배가량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겠지만 10월에는 한글날 연휴가 포함되어 실제 분양 물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입주계획) 연말까지(10월~12월) 남아있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임대를 제외하면 약 10.4만호 수준²⁾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2) 한국부동산원 입주예정물량 기준 분양, 정비, 조합,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실제 일반 입주 가능 물량은 더 적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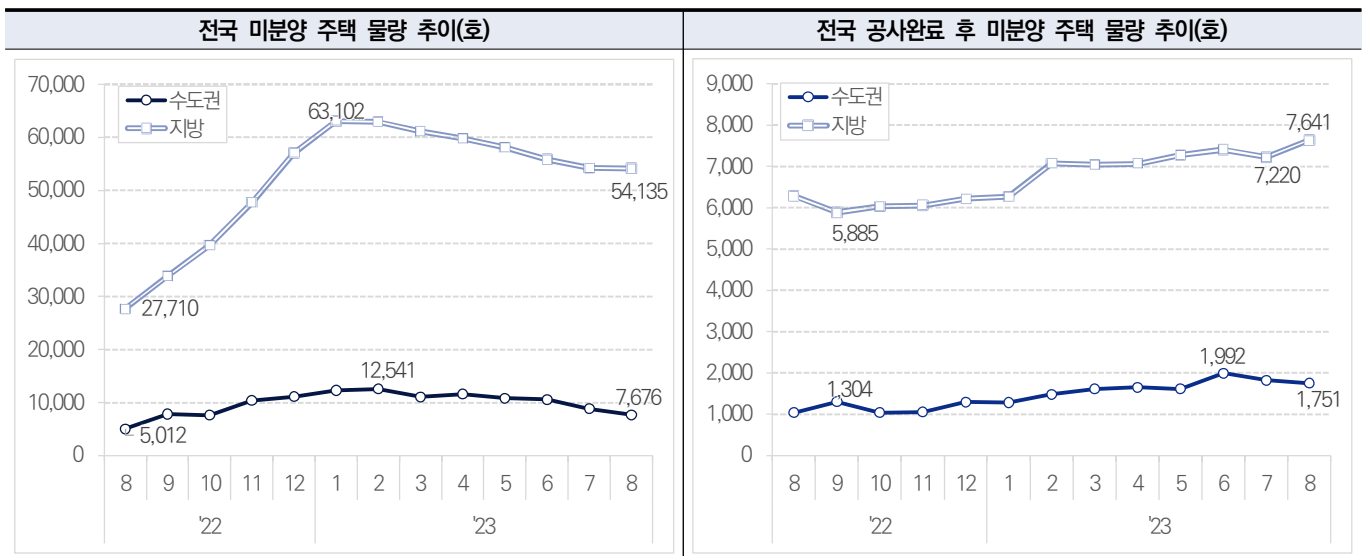
공급

3_미분양

- 8월 전국 미분양, 2.0% 감소한 6만 1,811호로 집계돼 6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져
- 공사 후 미분양은 지난달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달 들어 재차 증가

- ◎ **(미분양)** 8월에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3.1%, 지방 미분양 물량이 0.2% 감소해 전국적으로는 MoM 2.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7.5만 호로 전고점을 기록하였지만, 2월부터 8월까지 18.1% 감소해 6.2만 호로 감소함.
 -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해소 속도가 지방에 비해 빨라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지방 소재 주택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과거 추이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 **(공사 후 미분양)** 8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9,392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3.9% 증가
 -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란 사용승인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집계한 것임.
 - 지난달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감소가 한 차례 나타났지만, 이번 달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미분양 증가가 시작된 시기를 상기해보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격 감소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요

- 매매 및 전세 수급동향지수는 올해 들어 지속해서 상승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듯
-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110p, 직전 고점인 2022년 5월 수준을 회복함.

◎ (수급동향) 매매·전세·월세 등 전국 아파트 수급동향지수, 8개월째 꾸준히 상승 중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지수는 전년 12월 70.5였던 것이 9월에는 대략 20p 오른 90.4를 기록
- 월간 변화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의 수급동향지수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지수 회복 속도가 소폭 더뎠다. 금월 지수의 변화율은 지방에서 더 큰 모습

* 최근 3개월 아파트 수도권 매매수급동향지수 MoM 변화율 : 2.2% → 2.1%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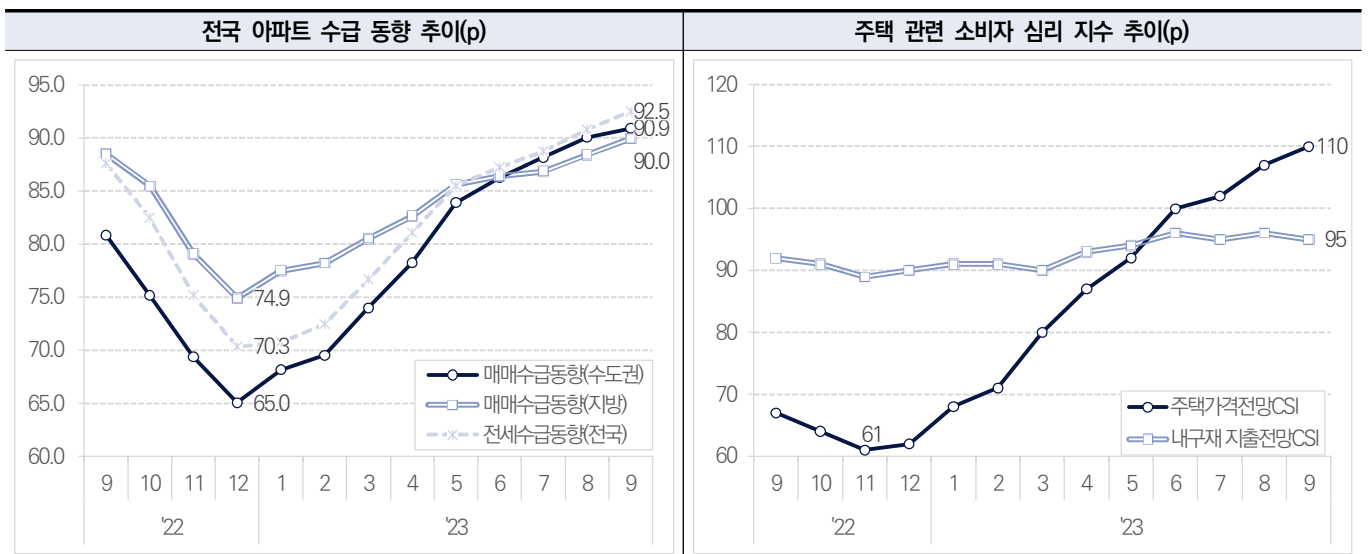
** 최근 3개월 아파트 지방 매매수급동향지수 MoM 변화율 : 0.5% → 1.8% → 1.7%

- 부동산 포털의 매물 수준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분석해보면 수급동향지수의 개선에는 수요의 유입도 있겠지만 기존 주택의 공급(매물)의 감소도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완화 기조였던 주택 금융 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향후 수급동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심리)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10p로서 지난달에 비해 3p 상승

- 한편 9월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지출 전망은 96p를 기록해 90p 중반에서 큰 폭의 증가도, 감소도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냄.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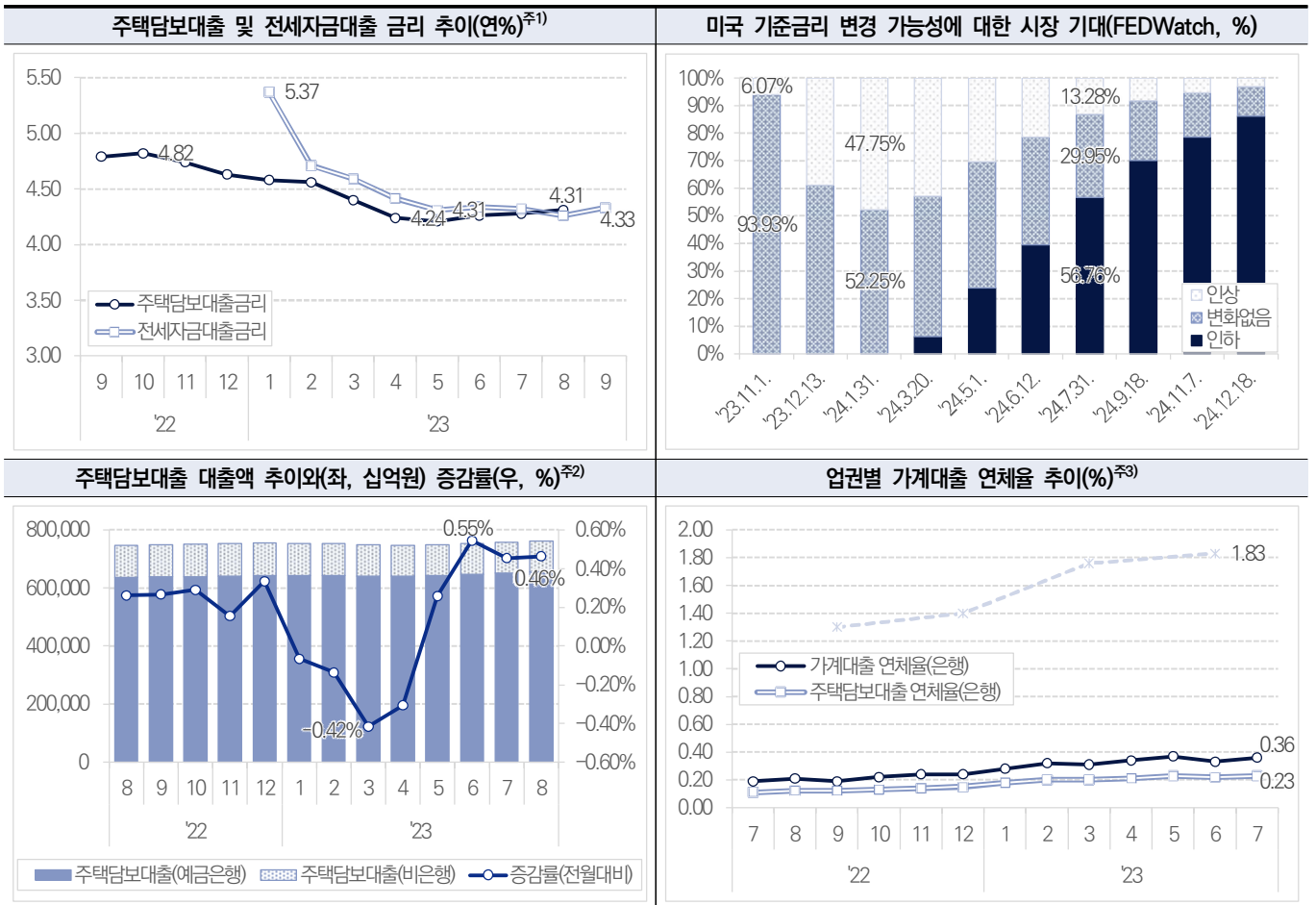
※ 주 :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금융

- (금리)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실행 기준)는 4.31%로 집계돼 전저점인 5월 이후 0.10%p 상승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소폭 상승세인 이유는 은행의 대출 태도가 보다 완강하게 변화하면서 가산금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8월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실행 기준 평균 금리는 4.33%로 나타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행태로 인상이 진행됨.
- (미국 기준금리 변경가능성) 시시각각 미국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금리 인하시기가 지연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점증하는 추세임.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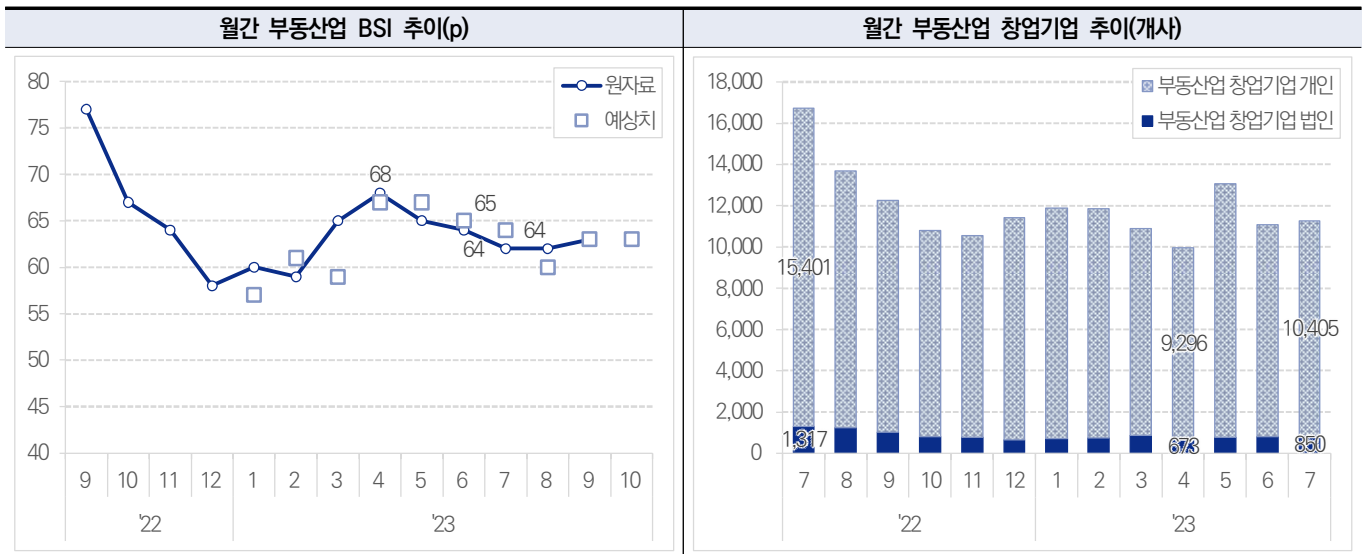


※ 주1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임.
 ※ 주2 :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 주3 :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 임의로 분기 말(3·6·9·12월)에 입력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부동산산업³⁾

- ◎ (부동산업 BSI) 2023년 8월 부동산업의 업황 기준 BSI는 63p로 지난달에 비해 1p 상승했지만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수개월째 유지 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
 - 당초 8월에 예상했던 9월 BSI와 동등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함.
 - 9월에 전망하는 10월 전망치는 9월 업황과 동일한 63p로서 가격과 별개로 업계에서 느끼는 상황은 큰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응답하였음.
 - 2019년 상반기 동안 이어졌던 가격 하락에 뒤이어 나타났던 상승장의 사례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9월이었고 BSI가 저점을 기록한 것은 2019년 8월로 동행 지표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음.
 - 따라서 향후 시장에서는 CSI와 가격의 방향성이 일치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 7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역시 6월에 이어 1.1만 개 수준으로 집계(MoM 1.6% ↑)
 - 2023년 상반기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6.9만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 1월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임.
 - 직전 최저치인 2022년 하반기 7.5만 개에 비해 8.9% 감소한 것이며 부동산업 창업이 활발했던 2019년~2021년 반기별 창업 추이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3) 본 고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부동산업(68)'으로 정의함.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

항 목	변화율 · 변화량					최신 집계치 ^{주1)}	최근 5년 변화 추이		
	직전 5년		직전 3년		YoY			MoM	
	고점	고점대비	고점	고점대비	-			-	
	저점	저점대비	저점	저점대비					
거시경제	경기선행지수 (p)	111.4	0.0%	111.4	0.0%	2.2%	0.3%	111.4	
		94.6	17.8%	101.1	10.2%				
	소비자물가지수 (p)	113.0	0.0%	113.0	0.0%	3.7%	0.6%	113.0	
		98.9	14.3%	100.1	12.9%				
가격지수	수도권 아파트 매매 (p)	483.0	-8.3%	483.0	-8.3%	-6.7%	0.0%	442.8	
		303.6	45.9%	386.1	14.7%				
	지방 아파트 매매 (p)	334.8	-6.8%	334.8	-6.8%	-5.4%	-0.1%	311.9	
		240.7	29.6%	274.2	13.8%				
거래량	수도권 주택 매매 (건)	75,725	-69.3%	63,203	-63.2%	67.7%	5.0%	23,277	
		10,299	126.0%	10,299	126.0%				
	지방 주택 매매 (건)	77,078	-63.3%	77,078	-6.8%	30.7%	8.9%	28,301	
		15,462	83.0%	15,462	83.0%				
공급	전국 아파트 분양 (호)	63,520	-65.2%	63,520	-65.2%	-41.4%	24.9%	22,113	
		7,039	214.1%	8,839	150.2%				
	전국 주택 미분양 (호)	75,438	-18.1%	75,438	-18.1%	88.9%	-2.0%	61,811	
		13,842	346.5%	13,842	346.5%				
금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	4.82	-0.51%p	4.82	-0.51%p	-0.04%p	0.03%p	4.31	
		2.39	1.92%p	2.44	1.87%p				
	주택담보대출잔액 (십억 원)	760,850.7	0.0%	760,850.7	0.0%	1.9%	0.5%	760,850.7	
		594,816.2	27.9%	661,496.1	15.0%				

※ 주1 :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
 ※ 주2 :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부동산114

약어표(가나다 順)

용 어	내 용	비 고
BSI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CSI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MoM	전월 대비 변화율(Month-on-Month)	
YoY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Year-on-Year)	
YTD	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Year-to-Date)	